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9. 11. 18 ~ 2019. 11. 23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정윤희, 김다윗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도시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9. 11. 18 ~ 2019. 11. 23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윤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다윗	

4. 출장목적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으로 국제적 도시 및 지역정책 현안 파악

- 참여국의 도시 및 지역정책 발표내용 청취로 현재 각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책방향과 중요 이슈 파악
- 지역지표작업반, 비도시지역작업반, 도시정책작업반 등 산하 작업반 회의 및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본 회의 참석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여로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내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과 의사결정 참여 및 발언권 강화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 회의 발표 자문 및 회의 결과 검토 지원

- OECD 국제회의에서 도시 및 지역정책 관련 발의 내용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한국 대표단 구성원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심지영 과장, 지역정책과 김민선 사무관, 지역정책과 서민지 주무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이현영 주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문성윤 자문관, 국토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김다윗 책임연구원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월18일(월)	인천		(14:00) 인천 출발 (KE901)	
		파리	(18:30) 파리 도착 (KE901)	
11월19일(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제22차 지역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오프닝 세션 및 의장단 선출 - 지역정책3.0 지역 복지를 위한 로드맵 발표 - 지역정책에 관한 OECD 원칙의 실행 - 지역정책에 관한 아테네 장관회의의 성과 - 지역혁신의 강화 - 주제별 프로젝트 업데이트, STI, TAD, CFE/SME 및 전문가 조정 - 현재와 미래의 공공 서비스 제공 비용 이해 - OECD 및 JRC의 첫 결과자료 발표, ITF의 조정 - 지역개발과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 - 자연 자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순환경제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으로의 전환을 지역개발전략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논의 - TAD, ENV, CFE/CITY의 조정 -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 개발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연구 - OECD 광업지역 및 도시 - 지역정책 작업반 회의 권한 개정 - 기타 - 히달고 모니터링, 고틀랜드 국토 리뷰, 관광 및 지역개발	
			<제37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참석> -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권한 개정 - 기능적 지역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향후 작업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위한 국토적 접근, 도시, 마을 지역 측정 논의 - 국제통계 비교를 위해 도시 및 지역 등 묘사 방법 등 - OECD 지역 및 도시개요 - 국제금융 데이터 및 분석 - CFE 스마트데이터 전략	

			- 국가별 구매력 평가 - 접근성, 국제화, 이주 및 지역개발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등	
11월20일(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제26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오프닝 세션 및 의장단 선출 - 사무국 최근 활동 및 향후 활동 보고 - 회의참석자 발표 - 지난 6개월간 도시정책 개발 관련 대표단 업데이트 - 도시정책에 관한 OECD 원칙 확립 -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권한 개정 방법 - 도시 혁신 강화 - 도시 혁신 역량 강화보고서 및 프로젝트 소개 - 도시 및 지역 지속가능발전 촉진 논의 - 세계속의 도시들 결과발표 -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및 차기 회의 일정 등 논의	
11월21일(목)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제4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오프닝 세션 및 의장단 선출 - OECD 지역개발장관회의 후속조치 - 2021-2025년간의 RDPC 권한 개정 - 2021 OECD 지역전망 보고서 - 도시 및 지역 등에 대한 혁신 강화 - 디지털화를 통한 도시 및 지역 강화 - 도시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구현	
11월22일(금)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CFR)		〈제4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개발 토론 - 다층적 거버넌스의 글로벌, 도시 및 지역 차원의 발전 - 지역개발 자금 지원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접근성 : 도시 및 지역 교통 수요에 대한 재고 및 차기 회의 일정 등 논의	
11월23일(토)	파리		(13:10) 파리 출발	
11월24일(일)		인천	(8:1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핵심 요지

○ **(제37차 지역지표작업반 세션)** 국가별 도시 정책의 이슈 및 지난 20년간 OECD에서 수행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의 성과 논의, 올해 만료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작업반의 강령(mandate) 연장 관련 논의, 지방 정부의 재정 데이터 분석 방법 및 기능적 도시 지역과 기능적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논의

○ **(22차 지역정책작업반(비도시지역) 세션)** 지역정책의 주요 이슈 및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정책 관련 연구의 진행사항 및 결과 논의, 위원회 조직체계 구성 등의 규약 제정, 비도시 혁신 증진,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논의 등

○ **(제26차 도시정책작업반 세션)** OECD RDPC에 대한 지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논의, 참가국의 최신 도시정책 사례 및 의견 공유

○ **(제4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OECD 지역개발 장관회의 후속조치 공유, 2020년 임기 새 위원회 구성, 각 작업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의 진행사항을 공유 및 각국 의견 청취

2. 관찰 및 평가

○ 금번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개발(SDGs), 혁신과 디지털화, 다층적 거버넌스 등 주요 지역, 도시, 비도시지역의 이슈와 정책방안 등 세계적인 지역정책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아울러 주요 회원국들이 소개한 자국의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대응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을 각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됨

○ 한국 대표단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심지영 과장은 OECD 연구 결과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

[붙임] 제41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산하작업반 회의록

1 제37차 지역지표작업반 세션

○ 회의명
- 제37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작업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19일(화)
- OECD Room CC5

○ 참석자
- OECD 회원국
- 서민지 지역정책과 주무관, 문성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문관
- 국토연구원 정윤희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국가별 도시 정책의 이슈 및 지난 20년간 OECD에서 수행한 도시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 논의
- 향후 5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작업반의 강령(mandate) 개정 관련 논의
- 기능적 도시지역 관련 프로젝트 최종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국제적인 통계 비교를 위한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통계경계지역 식별 논의
- 2020년 한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보고서 내용 제안 및 논의: 범위 및 필요 데이터
- 지속가능한 발전 목적(SDGs)을 위한 지역적 접근: 체계 및 지표
- CFE 스마트 데이터 전략: 목표와 아이디어 논의
- 지방의 재정 데이터 및 분석: 지방의 구매능력 지표 프로젝트 결과 및 지역 회계 데이터 베이스 개발 결과 보고
- 지방 구매력 지표의 동등성: OECD 국가 들의 지방재정 구매력 평가
- 접근성과 포용: 접근성(Access)과 근접성(proximity) 측정을 위한 자료의 통합
: 캐나다 통계의 경험, 교통접근성과 포용적 도시
- 국제주의(Internationalisation) 및 이민과 지역 개발
: 지역의 국제화 평가 결과, 국제이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and agenda approval)

1) 36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결과 요약 및 37차 본 회의 아젠다 소개

○ 올해 5월 13일에 개최된 36차 지역지표 작업반의 결과를 승인하고, 37차 회의의 아젠다 소개

[ITEM2] 2020 작업반 임명

1) 2020년 지역지표 작업 부서 임명

○ 지역지표 작업반의 임명. 지난 임기 동안 활동한 이탈리아의 Giovanni Barbieri 에 감사하며, 차기 임원 임명을 승인

의 장: Mr Alessandro Alasia (Canada)
부의장: Mr. Rupert Kawka (Germany)
Mr. Francisco Vala (Portugal)
Mr. Oscar Gasca Brito (Mexico)
Ms. Ksenia Shadrina (United States)
Mr. Lewis Dijkstra (EU)

[ITEM3] 지역 개발 정책 위원회 지역지표 작업반의 강령(mandate) 갱신

○ 지역정책 지표작업반의 강령 개정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공유

- 현재 강령하에서의 성취에 대해 보고하고, 개정된 강령에 통합되어야 할 방향과 주제에 대한 견해와 아이디어를 공유
- 5년마다 작업반의 강령을 갱신하며, 현재의 강령은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에 만기 됨. 새로운 강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강령에 대한 초안은 내년 1월 준비. 차기 작업반 회의에서 개정된 강령을 발표하고, 승인을 받을 예정임

○ 현재 지역지표 작업반의 강령이 여전히 적절한지,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들 의견 공유결과, 기존 권한에서 규정한 강조점들은 여전히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지표작업반이 국제기구를 관찰자(observer)로서 참여하도록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됨

○ 미국

- 작업반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의 강령은 여전히 적절함. 향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전략 검토 필요성과 작업반 각국 대표들의 더 활발한 참여를 제안
- 중간수준의 목표의 성취에 감사하며,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업환경과 경쟁력에 관한 새로운 지표의 포함을 지지 함
- 지난 회의에서도 경험했듯이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국제기구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 현재의 강령이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간의 균형을 갖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민간 부분의 참여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영국

- 현행 강령이 이룬 성과들에 대해 감사하며, 사업환경 및 경쟁력 등을 강조점에 추가할 필요성 제안
- 국제기구의 참여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작은 룸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전략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포르투칼

- 현행 강령의 성취에 대해, 지리적 데이터와 통계적 데이터의 활용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 졌음
- 국제기구의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작업반의 강령과의 연관성, 참여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노르웨이

- 강령의 포괄적 목표에 대해 지역개발정책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자체에 대해 분석도 할 필요성 제안
- 새로운 강령의 논의를 위해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지표작업반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

○ 스웨덴

- 새로운 강령에서는 집중할 핵심적인 목표의 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
- 또한, 지표작업반이 위원회의 요구나 필요에 대응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

○ 멕시코

- 국제기구의 참여나 민간 기관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신중할 필요

○ 에스토니아

- 정부 및 지방정부 등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측정하기 위한 신규 지표의 검토 제안
- 국제기구의 참여는 환영하나, 참여가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준비할 필요

○ 독일:

- 국제적인 비교를 위한 지표들을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이나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

○ 리투아니아

- 현재 경제성과 및 인구 변화 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 교통,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조화롭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필요

○ 의장

- 여러 제안에 감사하며, 향후 진행될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함

[ITEM4] 기능적 경계지역 논의

○ 캐나다 통계청과 공동 수행한 보고서[1)]의 최종안 소개

- OECD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계지역 설정 방법은 중심(cores) 도시들을 기준으로, 도시의 경제적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었음. 그러나 기능지역을 정의하는 영토적 연계는

1) "Functional Areas for All Territories" 슬라이드 참조. 미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에투아니아를 대상으로 연구

비도시지역에도 존재하며, 이는 지역통계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괄하는 정책 입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OECD 국가들에서 기능지역 경계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과 여러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전들을 검토하고, 기준 적용의 실행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함
- 기능적 도시지역은 기존의 국가별 통계지역의 정의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점에서 유용함
- 투명성과 재생산 가능성을 위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보다 세밀하고, 시의 적절한 분석을 위한 대안적인 데이터 소스를 검토

○ 국제적 비교를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능적 경계지역 설정의 구분이 각기 다른 통계기준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됨

○ 영국, 캐나다, 터키 등에서, 기능지역 통계 기준을 과연 지리적, 행정적 정책결정에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 됨

○ 기능지역 경계의 통계활용의 유용성은 정책 수립에의 기여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ITEM5]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국제 수준의 경계설정

○ 2018년 지역지표 및 도시정책작업반의 공동워크숍에서 유럽연합에 의해 발표된 “도시와 정주의 국제적 정의를 향한 로드맵” 에 이어, “국제 비교를 위한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 연구의 배경 보고서 초안 발표

- 유럽연합, OECD, FAO, ILO, 유엔해비타트, 세계은행, Eurostat 등 국제기관의 협력체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화 수준과 기능적 도시 지역의 정의를 내림
- 정의의 목적은 도시,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의 국제적 비교와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DGs)의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임
- 데이터와 방법론의 관점에서 요소를 공유하는 두개의 정의를 사용하여 경계지역 설정: 도시화 정도와 기능적 도시지역
- 이러한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격자셀(grid cell) 데이터가 필요
- 이 보고서의 최종안은 2020년 3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통계 연합 회의(UN Stats Com 2020)에서 발표될 예정 [CFE/RDPC/TI(2019)8].

○ OECD가 2020 UN 통계회의에서, 제안된 경계지역 개념의 제출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묻고 승인함

- 미국, 영국 등에서 OECD국가들의 기능지역 경계 활용의 유용성에 대해 의견 제시

○ 미국

- 미국은 미국주거조사(AHS: American Housing Survey)에서 도시, 교외,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다행이 제안된 방법론에 부합. 그러나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계와 어떻게 일관된 노력이 될 것인지 검토 필요

○ 영국

- 사용하는 일부 단어들은 여러 국가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제안된 Town의 정의를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세계 수준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여전히 과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

[ITEM6] 세계의 도시들.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데이터 분석

○ 세계의 도시들에 관한 OECD와 EC의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보고

- 도시의 정의에 대한 고유하고 일관된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
- 지난 수십년 간 성장해온 대도시권 지역이 어디인지 밝히며, 그러한 성장을 이끈 요소들이 무엇인지 검토함
-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50%이상의 도시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여러 국가들의 삶의 질을 검토하고, 정주형태가 다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 혹은 주관적인 웰빙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
- 도시 및 인구밀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와 연관된 도시의 형태의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발표
- 경제개발과 도시체계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설명: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의 관계, 대중교통정책 등이 도시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
- 최종보고서는 2020년 2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에서 출간될 예정

[ITEM7] 한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보고서: 개요

○ 2020년 가을 출간될 예정인 한눈에 보는 OECD 지역과 도시의 2020년 판의 개요 소개 및 데이터 수요 공유

- 2020년 4월 판에 새롭게 포함된 주요 주제와, 각국 별로 작성할 페이지의 형태를 소개
- 각국의 페이지는 5개의 테마로 구성
- 새롭게 포함된 주제들: 지역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 지역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생산, 세계의 도시들
- 향후 필요한 자료에 대한 수요와, 매년 시행되는 지역별 데이터 조사의 상태를 공유
- 지역의 교육지표 작업반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역 교육지표의 취합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국 대표단의 의견 청취

○ 각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ITEM8]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위한 지역적 접근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접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각 도시 및 지역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위한 지역화 된 지표 체계의 진행성과를 소개하고, 각 도시 및 지역이 2030년 목표치와 얼마나 근접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까지의 거리 측정: OECD 접근법
- 목표수준을 정의하고, 결과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목표에 의한 통합지표 산출: 0-100 사이의 수치로 지표를 산정. 100은 목표달성을 의미
- 지역수준의 103개의 목표 중 61개의 진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120여개의 지표가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위한 지역화 된 지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17개 목표에 관한 OECD 국가 및 선정된 협력국가들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가 17개 모든 목표 부문에서, 75% 이상의 OECD국가들은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 됨
- 예측치를 선도적으로 모니터 함으로서, 이를 정책설계 및 수정에 활용할 수 있음
- 관련된 결과의 시각화 도구는 OECD.STATS 웹사이트에서 접근 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 지표체계 제공 및 지표측정 결과의 시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추후 활용 검토할 것으로 의견 제시

○ 한국 대표부 발언

- 지역발전의 객관적 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대해 소개
- 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것을 지표에도 반영한 겻과, 주민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성지표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의 지원을 위한 적정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생활SOC 접근성 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차원에서 OECD 의 선행연구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 발표

[ITEM9] CFE 스마트 데이터 전략

○ 지역지표작업반에서 그동안 논의 된 데이터와 분석적 방법론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있어 특정한 변화가 필요함

-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정보보호의 문제, 법적인 모호성 등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구매, Geo-spatial Lab과의 협업, OECD wide initiatives의 지원 등
- 컴퓨팅 역량 및 인프라와 관련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과 고용으로 역량을 강화
-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예정

- CFE 와 관련된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각 작업반 및 기타 위원회와 작업반에서 수행하는 작업에서 스마트 데이터와 연계되는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화된 접근에 어떻게 착수하는지, 그 전략을 소개
- 각 회원국의 코멘트와 전략을 정의하기 위한 제안

[ITEM10] 지방 수준의 재정 데이터 및 분석

○ 지방의 구매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Uncovering the Unknown: Spending indicators on municipal decision making authority)

- 이 작업은 특히, 단일유럽연합과 OECD국가들의 지출 측면에서, 지역수준의 분산화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와 지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 32개 OECD국가의 국가 및 지방회계게정의 고유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의 구매자율성과 자치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 보고서는 지방수준의 분산화 정도에 대한 재정지표들을 개발하고, 2011-2017년의 기간에 10개의 주요 COFOG 범주의 일반 정부 지출에 있어서 지방의 구매비율(municipal spending shares)을 분석
- 보고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는 통합된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시되었으나, 5개 국가(핀란드,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가 더 세밀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일럿 스터디 사례지로 선정됨
- 위 5개 국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향후 주요 지표들의 국가별 분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방정부 재정 및 투자에 대한 파일럿 데이터 베이스 프로젝트 경과 보고

- 새로운 국제적 지방공공재정 데이터베이스와 지방공공재정에 대한 보고서 초안 발표
- 지출, 투자, 세입 과 부채에 대한 지방정부 수준의 데이터가 2010-2016 기간을 대상으로 24개 국가에서 수집되어 왔음
- 이는 신뢰할 만하고, 표준화된 데이터의 제공으로, EU와 OECD 국가 간의 국제적 비교분석을 활성화 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선택된 국가들에서 지역 공공 재정의 주요 흐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공공 및 지방 부문의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비중 등으로서 일인당 구매력 지수(USD PPP per capita)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래수단이 포함됨
- 데이터베이스는 OECD.stats 웹사이트의 지역별 섹션을 통해 곧 공개 될 예정

○ 지방에서 누가 어디에 재정을 사용하며, 효과는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영국 측의 발언이 있었음

[ITEM11] 지방의 구매력 동등화

○ 지역의 총생산 지표는 전통적으로 국가 구매력지표를 이용하여 조정하나, 지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지역수준의 구매력 지표 측정이 필요함을 제안

- 한 국가의 모든 지역에 단순하게, 지역적인 물가 차이가 없음을 전제하는 동등한 생활비용을

가정하여 적용하여 산출되는 지역의 구매력 지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제약을 부여

- OECD 교육부의 대니얼 산체스는 미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의 구매력지수에 기반 하여 OECD TL2 지역에서 샘플 추정치를 사용하여 구매력 지수를 모델링 하는 방법을 발표
- OECD 국가와 지역의 구매력 지수 추정 결과, 공식적인 지역구매력 지수와 추정된 구매력 지수 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을 평가함에 있어 가격조정의 중요성을 강조
- 지역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구매력 지수를 생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OECD국가들의 이 분야의 데이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지역수준의 구매력 지수 제공할 것을 제안
- 추정된 지역의 구매력지수가 어떻게 국가의 공식 통계와 일치 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쉽게 재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
- 방법론 및 개선이 가능한 부문 및 분석 목적을 위해 어떻게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대표단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

[ITEM12] 접근성과 포용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서비스와 어메니티 (대중교통, 학교, 식품점, 도서관 등)에 관한 근접측정 실행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결과 보고 (A set of local proximity measures for Canada)

- 접근성은 사회적 통합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임. 각종 사회 서비스와 어메니티 접근성을 측정하여 사회적 포용여부를 측정
- 거리의 측정: 물리적 거리, 통행시간, 등 다양한 데이터 이용 가능
- 지리적 단위: dissemination block(DB)
- 이 측정치들은 2020년 봄에 실험적 통계로서 발표될 것이며, 사회통합, 삶의 질, 주택개발 등의 분야의 정책 개발과 실행 결과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함
- 측정치는 각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적응된 일반화된 중력모형에 기반. 측정치의 재생산성에 강조점을 두고, 개방소스코드와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 데이터를 혼합적으로 사용함
- 개방 소스를 활용하여 측정: OpenRouteServic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 OpenStreetMap 이용하여 도면화 하는 등 방법론의 활용과 재생산에 초점
- 이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같은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에서 교통 접근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를 발표(The EC-ITF-OECD Urban Acess Framework)

- OECD는 EC와 ITF와 함께, 간단하지만 종합적인 도시 교통 시스템의 성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도시 접근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왔음
- 접근성이란, 일정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
- 근접성이란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목적지의 수
- 근접성에 교통의 성과를 고려하면 접근성
- 도시 접근성 프레임 워크의 지표들은 8km 범위 안에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개인 차량 등에

의해 닿을 수 있는 목적지의 수를 측정
- 이 지표는 30개 유럽 국가들의 121개 도시에서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음
- 이 도시 접근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시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누가 개선된 접근성의 수혜자가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로마에서는 고소득 거주자들이 차량접근성 뿐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도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임. 버밍험 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이 나은 접근성을 가졌으며, 런던에서는 소득계층간에 접근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됨
-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서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더욱 불균형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높은 접근성 때문이 아니라, 낮은 지역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은데 기인
-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차이가 더욱 큼
- 부유한 사람들은 더 나은 접근성의 수혜자가 될 확률이 큼

[ITEM13] 국제주의와, 국제이주와 지역개발

○ OECD 국가들의 국제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된 지표들을 발표(Measuring the internationalisation of regions)
- 2019-2020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작업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 인재들,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 전략을 위한 것임
- 데이터 셋은 인프라, 사람들, 지식, 그리고 사업 연계의 네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제화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검토하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개발
-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지표를 제시하며, 특히 프랑스와 OECD간의 대화, “세계화 시대의 프랑스의 지역”에서 도출된 프랑스의 특정 사례 지역들에 적용
-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
- OECD 국가에서 지역의 세계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유용성
- 지역의 세계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지표 및 차원에 대한 의견 제시

○ 지역개발에 대한 이주의 기여 평가
- 본 프로젝트는 정량적/정성적 분석, 새로운 데이터그리드 개발과 다양한 정부수준의 이민정책 매핑에 기반 하여, 지역정책에 대한 이주의 기여를 평가하고자 함
-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설명
- 특히, TL3 지역 혹은 보다 세분화된 지역수준에서 지역의 이주 정보 자료가 필요함을 강조
- 사회경제적인 지표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간적 그리드를 개발하는 목표를 설명하고, 파일럿 연구에 함께 참여할 국가가 있는지 의견을 청취함

○ 미국: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라는 표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Going global 지표를 제안

○ 멕시코: 국제화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보임

○ 유럽연합: GOING GLOBAL 이라는 명칭의 대안 제안한 미국의 의견에 동의

2 제22차 비도시지역 정책반 세션

○ 회의명

- 제22차 비도시지역 정책(Rural Policy)작업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19일(월)

- OECD Room CC7

○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김민선 사무관, 농식품부 김준현 사무관

- 국토연구원 김다윗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저탄소 경제

- 비도시지역정책 3.0

[ITEM3] 비도시정책3.0 및 OECD 비도시정책 헌장

① 제12차 OECD 비도시정책 컨퍼런스 결과(농식품부 김준현 사무관)

ㅇ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비도시발전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과 주요 의제 설명

- 올해 컨퍼런스 주제인 '비도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한국 농식품부가 주최한 사전컨퍼런스 및 OECD가 주최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논의 의제 및 논의 내용 소개

- OECD는 비도시정책 3.0의 공식 출간을 발표하고 이에 관련된 OECD 비도시정책 헌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

ㅇ 논평(비도시작업반 사무국, 반장)

- 한국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OECD비도시정책 3.0의 아젠다와 접근방식, 새로 제시된 방법론 등이 포함된 도큐먼트를 만들었으며, 우리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테마인 '비도시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여 비도시의 혁신 전략과 방안에 대해 비도시의 서비스전달 및 혁신 관련 중소기업(SMEs)의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 생태계 형성, 기업가정신의 발현 등 의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논의되었음.

② 비도시정책3.0: 사람 중심비도시정책(RURAL POLICY 3.0: PEOPLE CENTRED RURAL POLICY) (비도시작업반 사무국)

ㅇ 주요 내용 및 의의

- 비도시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함의: 올해 개정된 OECD 지역유형 구분(TL3: 완연한 도시, 완연한비도시, 중간지역)을 통해 살펴보면 도시와비도시 지역 간 통합이 점차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됨. 이와 더불어,비도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저밀도지역, 원격지역 등으로 분화되면서 비도시의 수요 또한 구분되고 있음.

- 비도시경제의 다변화, 비도시-도시 연계 강화, 기술변화와 디지털화,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력의 감소 등의 비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웰빙'을 비도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

- 사람 중심 접근방식 설정의 함의: 정책의 이해당사자(공공, 민간, 시민사회)와 목표(경제, 사회, 환경), 비도시지역(대도시 내부, 도시 근교, 원격)을 통한 비도시의 긍정적 미래를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

- 비도시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적 대응: 생산성 위기 극복을 위한 도농연계 강화 및 고부가가치 경제활동 참여 증대 필요

  * 통상부문의 부가가치 증진(비도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혁신 증진, 비도시 중소기업(SMEs)의 생산성 향상, 기술 역량 강화), 비도시 중소기업의 국제화(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서비스전달 주체로 편입, 신기술 대응 역량개발 및 훈련), 비도시지역의 가치 증진(지역 노동자의 산업 간 연계 강화, 공급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지역 내부의 조세 재투자)

- 비도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략: 커뮤니티 차원의 서비스 공급자 육성,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를 위한 거점 형성 및 집중, 유사 서비스의 통합, 커뮤니티-기발 해결책 마련 등

- 저탄소경제가 제공하는 비도시발전의 기회: 환경적 효용(천연자원 보존, 생태다양성 및 생태계의 서비스기능 유지, CO2 배출 감축, 기후 회복력 증진) 및 사회경제적 효용(기술과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 신규 시장 및 생산물 형성, 사회적 포용 등)의 증진

ㅇ 주요 논의 내용

- 사무국 요청 토의 주제: 1) 비도시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책 사례 혹은 지역의 우수사례 소개 요청, 2) 사무국이 제시하는 대안적 정의로 개정하는데 의견 요청

- EU: 이번에 제시된 비도시정책의 핵심 아젠다인 사람 중심 접근방식은 비도시의 수요를 반영한 민주주의적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이해됨. 비도시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 과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비도시의 미래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핀란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이 비도시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임. 도시와 비도시의 공동 대응 과제로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문제임. 이외에 핀란드는 스마트 축소 전략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원격 지역에서도 대응을 모색 중임. 도시와는 다른 비도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비도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왔음.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프랑스 거버넌스의 경험을 참고해주길 희망함.

- 캐나다: 비도시 아젠다가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비도시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비도시발전을 위한 전략 방향과 플랫폼을 설정하는데 OECD의 제언이 참고가 되길 희망함.

- 대한민국 : 한국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소개

  ·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정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협약을 체결, 이를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함.

  · 이를 통해,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다양한 지역 사업(관광, 산업단지, 복지시설 등)을 진행하고,

  ·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앙-지방 정부간 새로운 협업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일본: 비도시의 과소화, 고령화 대응 문제가 정책 과제로 부각됨. 비도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SMEs) 지원, 비도시 이주민 지원,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비도시 서비스 향상 등 다방면의 연계 방안을 통한 비도시의 혁신 기반 마련이 관건임. 비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OECD 정책과 공동 대응하기를 희망함.

- 그리스: 도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이 이슈임. 비도시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단순히 적응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

이라 생각함.

[ITEM4] 글로벌 차원의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구분

ㅇ 논의 제안

- OECD 사무국: 이번에 개선한 OECD 지역유형 구분(TL3)은 지역 관련 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대도시 및 일반도시, 비도시 지역 구분의 방법론으로 의미를 지님. 회원국 차원에서 이러한 개선된 지역유형 구분법이 국가별로 왜 필요하고 유용한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비도시에 당면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주기 바람.

ㅇ 각국 발언

- 호주: 정책적으로 대도시와 근교, 원격 비도시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당면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호주의 지역 유형 구분과 전혀 다른 접근방식임.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일부 인구가 적은 도시의 유형 설정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멕시코: 대도시권 내부의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체계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OECD 지역유형 구분에 대해 적용해보고자 노력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임.

- 이탈리아: OECD 지역유형 구분을 통한 비도시 정의 방식이 저밀도 지역을 어떻게 세분해서 구분 가능한지 의문이 있음. 비도시의 토지이용의 체계화와 더불어, 도시와는 다른 비도시의 다양한 특성,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함.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스웨덴: 비도시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이 다른 점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반면, 국가별로 도시, 비도시 등 인구 규모가 다른데 이에 대한 글로벌 합의 형성은 쉽지 않을 것.

- 러시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근교 비도시의 유형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함. 다양한 비도시 지역이 지닌 나름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된 대응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외에 도시-비도시 작업반 간 협력 과제 도출에도 유용할 것임. 지자체의 행정구역 획정을 변경할 경우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각국 간 도시, 비도시 간 구분 정의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어, 토지이용, 발전전략 수립, 숲, 녹지 보존, 인구 분포 등의 공통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짐.

- 대한민국 : 비도시지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도시지역에 접근(시간)을 기준으로 한 생활 SOC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도시지역 내에서 어디서나 보편적

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하나의 최저기준으로 제시함.(예, 의료시설은 10분, 초등학교는 15분, 생활체육시설은 10분 내 도달) 비도시지역과 여건에 맞는 대안적 자료를 통해 맞춤형 지역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TEM5] 비도시 혁신 증진

o OECD 비도시 혁신 관련 연구 계획 발표(OECD 비도시작업반 사무국)

- 비도시 혁신 증진을 위한 요인과 배경 등을 한국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통해 꾸준히 논의해왔음. 주로 비도시의 산업생태계를 통한 혁신 혹은 기술적 변화가 비도시의 웰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임. 이와 더불어, 변화에 수반되는 여러 도전 상황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도 중요함.

- 이에 대해 2년 간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데이터 수집, 사례조사 등을 수행하여 도-농 연계, 비도시정책의 역할 등을 검토할 것임. 회원국의 의견과 도움을 부탁함.

o 발표: 디지털 시대, 지역 혁신의 격차(OECD STI〈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

- 혁신 행위는 지역과 사람별로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문제가 있음.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혁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

- 정책적 방안으로, 혁신의 선도 지역과 후발 지역 간의 차별적인 성장전략 도입, 기술 적응 지원, 혁신 바우처 등 기술 대응 역량 강화, 혁신 지원 정책 등 시도

o 발표: 농업·식품 혁신에 대한 OECD의 역할(OECD TAD〈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 OECD 농업·식품 생산성-지속가능성-회복력 정책틀을 설명하고, 국가 간 공급망 연계를 위한 정책 정합성 및 혁신 비즈니스 사례와 관련된 TAD 연구 프로젝트 소개

o 발표: 중소기업 혁신 전략(OECD CFE/SMEE)

- 차기 생산혁명의 핵심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조명하고, 향후 시장 조건와 비즈니스모델의 변화에 대해, 비즈니스 환경 형성 관련 지원 정책 등 대응 전략을 제시

o 발표: 노르웨이 트롬의 지역 혁신(Willy Ørnebakk, 노르웨이)

- 노르웨이 북부의 인구희박지역인 트롬의 지역 특성과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정, 혁신 거버넌스 등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혁신의 부작용 등 지역이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장

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시

- 사무국 논평: 글로벌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해 연안 지역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광대학 인구희박지역에서 서비스전달 등 지역 혁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함. 제기된 이슈별로 집중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ITEM6] OECD 광산 지역 및 도시: 민간부문의 새로운 역할

o 발표: 에너지시스템의 전환 시대, 비즈니스 모델은?

- OECD 광산지역과 관련된 메가트랜드인 자원에 대한 시장 수요 변화, 디지털화, 비즈니스환경의 변화 등을 제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체계 형성,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효과적인 협력 연계. 경제적 격차 대응, 개별 통상부문 간 연계 강화, 원주민 커뮤니티 대상 포용성장 등을 제시. 정책 제언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제시

o 발표 주제 관련 논평

-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자원 수요에 대응하여 광산 전략에서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 향후 지속가능한 채굴방식을 찾는 것이 과제일 것.

o OECD 사무국의 연구 사업 계획 소개: 비도시 혁신 증진(OECD Regional Development and Tourism Division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MEs, Local Development and Tourism)

o 연구 계획 발표

- OECD 사무국에서 향후 2년 간 연구 프로젝트로 계획 중인 비도시 혁신 연구 계획 소개 및 각국의 지원 당부

- 주요 연구 계획으로서, 각국의 혁신 환경 및 기업 활동에 대한 트랜드, OECD 지역 유형 구분에 따른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각국의 비도시 혁신과 관련된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도출하며, 관련 사례 분석 등을 수행

o 각국 발언

- 체코: 비도시 혁신에 대한 미래 핵심 동인으로 지역 혁신 그룹의 역할이 중요함.

- 캐나다: 비도시 혁신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역 차원의 비즈니스환경, 기업가정신 함양,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구축 지원 등이 중요한 4대 전략 과제임.

- 미국: 비도시 혁신의 패턴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지역 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고 있음. 지역 혁신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비즈니스-비즈니스, 도시와 비도시, 비즈니스-대학 등 연계체계의 강화를 추진 중임. 이와 더불어, 비도시 혁신의 파급과 확산에 대한 유도, 도시적 맥락의 혁신과는 다른 비도시 혁신의 고유한 방식과 패턴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핀란드: 비도시의 투자 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 비도시 기업의 역할 부여 등 비도시 혁신을 위한 실천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 슬로베니아: 혁신의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탐색하고, 비도시 맥락에서 혁신과 관련된 지표를 도출해야 함.

- 스위스: 지역별, 부문별로 혁신 기반 및 체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혁신시스템의 내부적, 외부적 접근 전략이 중요함. 다시 말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성과를 타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혁신 행위의 전파가 중요.

-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혁신 지원의 정책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 지역 기반의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중요. 이와 더불어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위한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 반면, 이스라엘은 중소기업의 혁신 활용 기반은 아직 약한 형편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창업 육성, 여성 혁신기업가의 활동 증진 등을 모색 중임. 이와 더불어, 혁신 관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 육성 시스템을 개선 모색 중.

[ITEM7] 현재와 미래의 공공서비스 전달 비용 이해

o 발표 : 현재와 미래의 공공서비스 전달 비용에 관한 프로젝트 소개와 및 사전 결과 공유

-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은 1) 높은 교통비용, 2) 규모의 경제 비효율, 3) 전문인력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비도시지역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지리적 공간범위(geographical scales)에 따른 서비스(교육, 보건 등)의 전달 비용을 예측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과 평가를 실시.

- 미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전략적 혁신방안을 평가, 현재와 미래의 서비스 전달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 정책 방안 제시.

- 사례조사(Alentejo, Portugal), 인구와 지리적 기반의 공공서비스 비용(Swedish model) 산정 : (예, 도시화에 따른 중학교 시설 접근 비용(cost) 산정하고, 도시, 타운,비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ㅇ 주요 의견

- 국가에 따라(예, 이탈리아) 학교시설과 학생수를 배분하는 시스템(regulation)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지역 자체(regional manager)에서 인위적으로 교육시설을 배분하는 경우에서는 파악이 힘듦.

-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함.

- 전문화된 다양한 학교의 형태(예, specialized high school)이 있다면 수요가 다를 것임. 또한, 지역에 따른 교사의 선호가 다를 수 있음

-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소매점 등의 시설 서비스도 고려, 추가할 필요 있을 것.

[ITEM8] 저탄소경제 이행

ㅇ 발표: 비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한 비도시 지역의 역할

- 최근 OECD 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저탄소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와 지역 단위의 이행관리전략의 핵심 방안 등을 제시. 이를 위해, 경제 이해당사자 간 수평적 협의와 호혜적 관계 형성이 중요.

- 지역 차원의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위험관리 및 기후변화영향의 회복력 증진, 탄소의존적인 토지이용 및 산업의 배출 저감,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 탄소흡수 및 공급자의 생태계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 미래 대응 방향으로, 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지표 개선, 비도시 커뮤니티의 이행관리를 위한 정책박스 제시, 지역순환경제 구축, 비도시 차원의 “공정한 이행”의 방향 설정, 생태계서비스 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새로운 비도시시장 형성, 녹색이행을 위한 투자 등을 제시

ㅇ 각국 발언

- EU: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해 비도시 지역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등 비도시의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연계되도록 강력한 정치적 아젠다를 형성해야 함.

- 이탈리아: 지역 관점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이행 전략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생태계 보전,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경관 보전 등 아젠다를 장소-기반의 지역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활성화해야 함.

- 이스라엘: 재생에너지와 태양광패널 등에서 공공공간 보전과 에너지 생산 관련, 농업적 토지이용과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임. 향후 전략을 수립할 때, 상이한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보존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

· 주거부터 교통까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에 조성 계획.

· 차량 운행 제한 및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등을 통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노력 중에 있음.

[ITEM9] 원주민 공동체

o 발표 (호주와 캐나다 원주민 사례)

-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은 토지와 자원의 소유, 전통적 지식 보유,비도시 지역의 인구 구성 등의 의미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참여자이지만,

- 현실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경제활동의 참여제 제한이 되어온 상태임.

- 정책 및 소규모 기업 등을 통한 원주민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예를 들어 원주민 사업 원칙 공유 및 경제개발정책 수립,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주민 참여 확대, 원주민 소유의 지역금융기관 설립지원 등의 방안 강구 필요.

- 또한, 원주민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장소기반 접근(place-based approach)과 토지(소유)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중요함.

o 주요 의견

- 연구와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실제 원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정책 방안 필요.

- 여러 회원국의 원주민간 대화와 소통의 증대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필요

- 원주민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고, 이는 상호 소통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일 것임.

- 원주민 대상 프로젝트들이 원주민 리더나 원주민이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ITEM10] 비도시작업반 규정 개정

o 발표: 비도시작업반 사무국

- 올해 발표한 OECD 비도시정책 헌장에 대응하여, 비도시정책의 원칙을 최선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작업반의 핵심 직무와 관련하여, 정책리뷰 및 주제연구, 현재 방법론 개선 등의 활동 영역을 점검. 특히, 도시-비도시 간 통합적 발전전략, 비도시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력방식의 개선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책적 제언 기능 강화 등을 다루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RDPC의 조직체계(지표작업반, 비도시작업반, 도시작업반)가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차기 5년간의 위원회 조직체계 구성 등의 규약을 2020년 9월까지 제정할 계획

3 제26차 도시정책작업반 세션

○ 회의명
- 제26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세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20일 (수)
- OECD Conference Center Room

○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심지영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과장, 김의연 녹색도시과 사무관, 서민지 지역정책과 주무관, 문성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문관
- 국토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김다윗 책임연구원

○ 주요 주제
- OECD RDPC의 지난 25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도시 및 도시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무국(Secretariat)의 활동에 관한 보고 및 논의
- 참가국의 최신(지난 6개월) 도시정책 사례 및 의견 공유
- 회원국의 도시정책에 OECD 원칙의 적용과 확산, 실행을 위한 프로포절
-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mandate 개정을 위한 조사 및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
- 지난 과제 업데이트 내용 확인 및 다음 회의 계획 공유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 의장 발언
- 5월에 열린 25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요약 및 보고서 승인을 위한 요청
- 26차 회의 아젠다 소개

[ITEM2] 2020 부서 임명

○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20 도시정책 작업반 활동을 위한 일년 임기의 작업반 임명

Chair:
- Mr. Vincent Fouchier (France)

Vice-Chairs:
- Mr. Marco Magrassi (Italy)
- Mr. Akira Oshida (Japan)
- Mr. Keith Thorpe (United Kingdom)

[ITEM3] 지난 활동 및 향후 활동 계획 보고

○ 지난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이후, 출간된 보고서들, 출간예정인 보고서들, 최근 이벤트 및 향후 개최될 이벤트 및 활동 들에 대해 소개

- 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s 소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및 리더쉽 지원 프로그램

[ITEM4] 각 회원국의 보고

○ 각 회원국에서 2019년 5월 이후에 초점을 두어 각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도시정책에 대해 발언

○ 영국

- 영국은 도시재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성장을 위한 stronger towns fund 등 도시 규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

○ 스웨덴: 도시국가정책의 범위에서, 특히 어린이를 위한 도시정책 및 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

○ 폴란드: 도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간 규모 도시를 위한 정책에 대해 소개

○ 일본: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 정부는 민간, 공공, 학계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구성, 지난 7월 OECD 스마트 시티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요코하마에서 아세안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가 열린 바 있음

○ 이스라엘: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및 도시의 밀도를 측정하는 복합지표 도입에 대해 소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핀란드: 국가적 도시정책의 관점에서 UN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고려하고 있음

○ 미국: 지역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여러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 한국의 수소시범도시 정책을 소개

- 한국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시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음

-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시범도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한 제도기반 구축노력에 대해 공유

-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 노력 등에 대해 공유

- 칠레: 칠레는 사회적 계층 분화 등 복잡한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도시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공공, 민간, 비정부 기관 및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31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임. 국가적 도시정책은 사회 통합, 경제개발, 환경 정의, 역사와 정체성, 거버넌스의 5개 챕터로 이루어진 문서임. 칠레정부와 여러 정당은 협력적으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주요 정책 이슈로 다루고 있음

[ITEM5] 도시정책에 OECD 원칙의 현장 적용방안

- 2019년 아테네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 및 제7차 시장 및 장관 원탁회의에서 도시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 승인
- 도시정책에 관한 OECD원칙은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도시에 대한 노력을 통합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면 포용적인 도시를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 도시 정책에 관한 OECD원칙은 국제기구, 개발은행, 도시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 연구소 및 학계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개발
- 향후 이 원칙들을 사용하고, 확산하며, 실행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OECD 사무국, 도시정책 작업반의 대표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승인된 원칙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
-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다른 환경에서 공유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달이 가능한 교훈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도시정책을 알릴 수 있는 실행 커뮤니티를 구축
- 현재 영어, 불어, 이탈리어, 일본어 등 4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회원국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함
- 현재 각 회원국이 확보 하고 있는 1) 데이터 베이스와 2)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3)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4) 도시 리더쉽의 참여로 OECD의 원칙들을 실제 도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
- 스웨덴: 어떻게 실행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 각 회원국들이 서로의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각 국의 다른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실행차원에서의 전략이 중요

- 영국 : 각 회원국가에서 원칙을 다른 정부수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함. 정부 차원에 따라 어떻게 원칙을 도입하고, 실행 수준으로 나아갈지를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고려 필요. 지역수준, 국가수준, 국제수준에서 구별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스라엘: 성공사례의 공유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 네덜란드: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 등은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평가 지표 체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와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제안

[ITEM6] 도시정책위원회의 강령 개정을 위한 논의

○ 심층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작업반의 현행 강령의 기한이 일 년 연장. 2021-2025 강령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음

- 향후 강령의 갱신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공유: 2020년 5-9월 경 최종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 2019년 3월 열린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 및 7차 시장/장관 라운드테이블의 결과에 기반하여, 대표단들은 도시정책 작업반의 향후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

- 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강령을 완수하도록 돕는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관련성에 대한 자체 평가수행 결과

- 회원국들은 주제별 보고서와 정책포럼, 평가와 사례연구 등에 역량강화나 지표, OECD 원칙 등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제별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낸 영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중간규모 도시(Intermediary cities)에 관한 연구임

- 사용자 친화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선 요구가 드러남. 보다 효과적인 논의 및 회의 결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

- 연구결과의 보다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함. 다양한 회원국의 참여와 의견 개진 환영

- 현재 만족도 조사에는 23명이, 자체 평가 조사에 8명만이 응답하였음. 결과의 해석이 더 많은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 필요

○ 영국: 작업반 회의 결과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회의 자료와 논의 결과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각 국 대표단들이 각 국가로 돌아가 작업반의 역할 등을 알리고,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더 많은 공유가 이루어지기 원함

○ 유럽연합: Intermediary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게 들림. 이 도시들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지에 대해 논의와 공감이 필요함 (intermediate city)

○ 독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주제 연구 또한 포함 되기를 희망

○ 칠레: 도시 안전은 여러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제에 도시 안전이 추가 될 것을 제안

○ 그리스: 도시정책과 토지이용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국제적 이주의 시대에 도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 이스라엘: 메시지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건강 및 도시 안전 분야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행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이슈임. 나열된 이슈들을 범주화하여

구분하면 보다 이해와 활용에 용이 할 것

[ITEM7] 도시에서의 혁신 역량 강화 2)

○ 도시 정부의 혁신 역량 강화 (Enhancing Innovation Capacity in City Government)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방 공공부분에서 혁신을 이루는지, 그리고 왜 혁신이 일어나는지, 어떤 혁신이 지방정부가 일을 하고 결과를 얻도록 하는지에 대해 파악

- 전세계의 8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서베이를 통해 혁신 전략 및 접근, 인력구조 및 활용,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펀딩,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 이 보고서는 조사결과와 문헌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지방공공부문에서 무엇이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는지, 그리고 무엇이 도시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분석함
- 프로젝트의 다음단계에서는 응답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거주민의 웰빙에 대한 가시적인 영향을 문서화하며, 어떻게 도시들의 데이터 운영 연략이 도시 거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

○ 2019년 7월 9일 파리에서 개최된 스마트 시티와 포용 성장에 대한 제 1차 OECD라운드테이블의 결과 및 자료집에 대해서 보고하고, 다음단계를 설명함

○ 한국은 도시의 혁신강화와 관련하여,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제 1차 OECD 원탁회의 결과 관련하여 발언

- 제 1차 OECD 원탁회의를 계기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소개하고,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음
- 40여개국 25,000명이 참석한 엑스포를 통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부간 글로벌 협력강화와 기업간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
- 계획, 건설, 운영을 통합한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산과 세종에 국가 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범도시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본격적인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1년 혁신적 스마트 시티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1차 OECD 원탁회의에서 한국은 스마트 시티를 통한 포용적 성장방안과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 부산 스마트 시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케어로봇과 도시의 물을 100% 재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스마트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시범도시 조성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경쟁을 활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2) 현장에서는 ITEM8과 순서 바뀌어, 오후 세션으로 이동하여 발표 됨

제도를 운영하여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글로벌한 스마트 시티 논의의 장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ITEM8] 영국 핵심도시의 생산성 강화

○ 영국 핵심도시는 영국의 2차 도시 10개시의 연합 (버밍햄, 브리스톨, 카디프, 글래스고,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카슬, 노팅험, 쉐필드)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벨파스트와 함께, 이 핵심도시들은 영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영국 경제의 약 1/4을 생산하지만, 이 도시 들의 생산성 수준은 OECD국가에서 비교될 만한 다른 이차 도시들 보다 낮은 수준
- 영국 핵심도시들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 영국 핵심도시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책임과 재정지원의 매치, 다년간의 예산계획, 통합전략의 계획과 실행역량강화, 높은 생산성과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
- 최종보고서는 2019년 4사분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거쳐 2020년 초에 발간될 예정임

[ITEM9]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9.A. 지속가능한(SDGs) 성장의 목표에 대한 지역적 접근

○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개발 전략 및 정책,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사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란 지방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등 모든 행위자들이 부문을 넘어서 협력하며,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부문 간의 정책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
○ 지역 인구와 관련된 신뢰성을 창출하고, 보다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관한 통합 보고서 안을 발표
- 보고서는 9개의 파일럿 도시와 지역으로 부터의 시사점, 국제적 모범 사례, 도시와 지역의 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측적을 위한 OECD의 지역화된 지표 체계로 부터의 발견점을 기술하며, 지역위원회와 함께 수행된 서베이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의 실행함에 있어 지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목표 169개 중 100개의 목표는 지역수준에서 달성 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의 목표는 책임의 공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평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지역적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

*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에서 K-SDGs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를 수립한 바 있음. 참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ncsd.go.kr)

9.b. 지역과 도시의 순환 경제

○ 기후변화, 인구성장, 도시화 등과 같은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맞추어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도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순환경제체계 접근방식의 적용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정책 대응이 될 것임
- 순환경제의 접근성은 필요한 거버넌스와 경제적 상황이 적재적소에 이루어 진다면 최대화 될 수 있음
- 법과 규제 시스템의 정비, 정책의 조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정보공유, 관찰 및 평가, 전환경제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요구 됨
- 2018년 11월에 열린 지난 도시정책작업반 회이이후 추가된, 통합 보고서 초안의 주요 결과를 발표. 도시 및 지역에서의 순환경제에 대한 OECD 서베이 결과와 4개 사례도시로부터의 도출된 교훈을 공유
- 개념적 틀: 3Ps (People, policies, and places)
- 순환경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정책 현황 파악.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방정부와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종보고서는 2020년 9월에 완성될 예정

[ITEM10] 세계의 도시들 (지표작업반 발표와 중복)

○ 세계의 도시에 관한 OECD-EC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발표

- 이 프로젝트는 1)도시화 정도, 2) 기능적 도시지역 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일관된 도시의 정의의 새로운 방법으로 도시, 대도시권, 비도시지역을 정의
-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 1제곱킬로미터 이하의 격자 셀 데이터를 사용, 인구밀도와 인구규모 등의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 (기능적 도시지역이란 도시에 통근권지역을 포함하는 개념)
- 방법론 보고서는 EC, FAO, ILO, UN-Habitat 와 세계은행의 협력으로 개발
- 2020년 3월 UN 통계위원회의 회의에서, 도시,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기존의 국가적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발표될 예정임
- 이 보고서는 12월 초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승인 이후 대표부에 배포할 예정이며, 2020

년 2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임
- 도시의 정의에 대한 고유하고 일관된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도시화 현상 설명
- 지난 수십년 성장해온 대도시권 지역이 어디인지 밝히며, 그러한 성장을 이끈 요소들이 무엇인지 검토함
- 여러 국가들의 삶의 질을 검토하고, 정주형태가 다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 혹은 주관적인 웰빙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
- 삶의 만족도는 비도시지역에 비해 도시에서 13%, 타운과 교외지역에서 1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및 인구밀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와 연관된 도시의 형태의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발표
- 경제개발과 도시체계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설명
- 각국의 대표단들의 의견: 도시지역의 구분이 국가별로 상응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미국은 예를 들어 50만 명 이하 지역은 메트로폴리탄과 구분하여 마이크로폴리탄으로 부름

[ITEM11] 프로젝트 결과 보고

○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예정인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Survey for 2nd edition of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report [CFE/RDPC/URB(2019)17].

○ 최근의 국제적 아젠다는 (e.g. SDGs, New Urban Agenda, Paris Climate Agreement, Sendai Framework)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중요성과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

○ 국가도시정책은 정부간, 정책영역간 협력과 조정을 확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증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책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 국가의 도시정책을 모니터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 됨

○ 국가도시정책의 국제적 현황 보고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도시정책의 현재 역할과 실행을 검토하기 위한 시도

○ 국가도시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의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에 있어서의 국가도시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2차 프로젝트가 UN Habitat와 Cities Alliance의 공동작업으로 진행 됨

- 모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서베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베이의 일차 결과는 2020년 2월 10차 세계도시포럼에서 발표될 예정
- 서베이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Unlocking the potential for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 건축물은 세계 에너지 사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노후되어 낮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임
- 재건축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장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님
- 국가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험 프로젝트를 격려하지만,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지출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기존 건물주에 영향을 줄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 혹은 통합 필요
- 건축물의 지역적 특성, 건설산업, 규제와 인증 역량, 주택 및 에너지의 지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지역 정부는 건축물 허가 및 공공 조달 등에 대한 권한을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효과적인 실행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프로젝트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향상시키고, 건물 소유주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역의 노력을 통합한 장소기반 전략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건축물과 관련된 지역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관심 있는 국가, 지역, 도시 및 민간기업의 사례조사를 포함함
- 각국 대표부의 의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및 관심 청취

▪ 중간도시 (Intermediary cities)

- 인구 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의 부상이 종종 정책의 주목을 받지만, 세계도시인구의 50% 이상은 인구 50만명 이하의 도시에 살고 있음
- 2030년까지 전 세계 중간도시들은 매가시티의 두배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도시들의 성장과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함
- 2019년 5월에 열린 도시정책작업반의 사이드 이벤트 결과에 기반 하여, 이러한 중간 규모의 도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이 도시들의 생산성과 포

용성장에 기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안을 제안함

○ 각 국 대표단에, 이와 관련한 문제 혹은 성공사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in cities) - 현장 논의에서는 생략

○ 공공조달은 OECD 회원국 총생산의 약 12%를 차지하며, 지역수준의 조달이 일반정부조달의 63%를 차지함

○ 공공조달 시스템의 개선은 지역과 국가 정부가 건강, 인프라, 에너지 등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효율성과 진정성을 통해 투자가치를 확증할 수 있으며; 혁신을 이끌어, 사회적 환경적 정책 목표를 증진 할 수 있음

○ 2019년 10월 22일 열린 공공 조달 포럼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반하여, 모든 정부 수준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공 조달의 잠재력을 키우고자 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와 공공 조달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도시의 공공조달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요중심 접근을 통해 특정 사례를 검토하며, 시장과 도시관리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임

○ 각국 대표부는 프로잭트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개진

[ITEM12] 마무리 발언

○ 의장 발언

- 향후 계획 및 일정 소개
- 2020년 4월 20일경 개최 될 도시정책작업반, 지역지표작업반 및 지역개발위원회의 다음 미팅으로의 초청

제4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산하작업반 회의 주요 내용

2019. 11. 21~22

○ 회의명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21일(목) ~ 11월 22(금)
- OECD Room CC 9

○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심지영 과장, 지역정책과 서민지 주무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이현영 주무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연구원 김다윗, 정윤희 책임연구원

[ITEM1] 오프닝 세션(Opening remarks)

1) OECD WPTI 의장(Chair) 발언

○ 환영 및 소개
- 22차 지역(Rural Policy)정책반 회의와 37차 국토지표 작업반의 세션이 19일에 동시에 개최되었음
- 또한 26차 도시정책반 회의가 지난난 11월 20일에 개최되었음
- 각국 인사 및 주요 발언
  · 한국 : 여러 직면한 상황 가운데, 포용적 성장, 지역쇠퇴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자립발전,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등이 중요하며, 한국은 새로운 대응전략 강구 중
  · 독일 : 독일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음. 다른 나라 지역정책의 주요이슈 및 진행, 정책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이스라엘 : 2040 장기계획 중인데, 해외 사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스위스 : 지역혁신 시스템, 농촌정책에 주요 관심이 있으며, 타국 사례 등 검토 필요

○ 주요 프로젝트 현황 및 회의 내용 공유
- 각 작업반의 현황 공유
- 주요 프로젝트 주제는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디지털화를 통한

비도시지역 혁신, 중소기업과 디지털(digital for SMEs)이며 이와 관련한 회의들이 준비 중에 있음.

- 또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에이징(aging), 주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논의도 지속 중
- 또한, 강령(mendate)의 제정이 준비되어 있고, 데이터, 메가트렌드(디지털화), 민간 부문 강화(private sector) 등의 이슈가 강조될 것임
- 기능적 지역, 도시 내 기능적 지역,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함께 논의 할 것임
- 국토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도 주요 이슈로 부각 됨
- 농촌 정책 컨퍼런스가 9월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이에 주최국가인 한국에 감사드림
- 도시화 및 기타 지역에 대한 국제 공동의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될 것이며,
- 혁신과 관련한 프로젝트 및 스마트 축소, 서비스 전달 비용, 지속가능성,
- 원주민 포용에 대한 사례(호주, 캐나다 사례 등)와 관련된 이슈도 다뤄질 것임.
- 수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0일~21일 베를린에서 12차 수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가 개최되었음

[ITEM2] 2020년 임기 새로운 위원회 구성 (Bureau designation 2020)

1) 임기만료자 소개

2) 신임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멤버(Bureau) 구성

- Prebe Gregersen(덴마크)임기만료와 함께 새로 구성 중에 있으며 2020년 RDPC 제안된 후보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Chair: Ms. Flavia TERRIBILE(Italy)

Vice-chairs : Maxine Lloynd(Australia(신임)), Georg SHADT(Austria), ames MEDDINGS(Canada), Luc FARALDI(France), Akira OSHIDA(Japan), Peter WOSTNER(Slovenia), Moray GILLAND(European Union)

[ITEM3] OECD 지역개발 장관회의 후속조치 (Follow-up to the OECD Regional Development Ministerial)

1) 제4차 RDPC 장관회의 내용 및 성과 공유

- 2019년 3월 23 일 아테네에서 열린 제 4 차 RDPC 장관 회의는 RDPC의 20 주년을 기념 함
- 그리스 총리와 경제 개발부 차관이 의장을 역임했으며 칠레 지역 개발부 차관과 한국 국토부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음
- 장관들은 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에 관한 선언을 채택함 (아테네 선언, 46개 국가가 채택)

- 의장의 회의 요약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를 추구하는 3자 성장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있어 지역 개발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
- OECD(RDPC) 역할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성과 공유 : 트위터, 기사, 매거진을 통한 성과 확산

2) OECD 지역 및 비도시 지역 원칙

○ 장관회의는 도시 정책에 관한 OECD원칙과 농촌 정책에 관한 OECD 원칙을 환영함

- 각 분야의 정책을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이며, 이러한 원칙을 OECD 권고안으로 전환 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청함.

3) PWB 활동 지원

○ PWB 2021-22의 활동에 토론 및 논의

○ PWB 2021-22 지원 방안 보고(작업반)

○ 다음 PWB에 대한 국가 우선 순위 및 관점 제안

- 캐나다 : 도시-비도시의 연계(linkage) 및 지역 경제의 다양화는 중요한 이슈임. 이와 함께 원주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
- 도시, 비도시 지역 외 중간적 지역(intermediate boundary region)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 미국 : 예산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하고, 장소기반,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이 중요함
- 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 검토 필요, 지역에 따라 기술변화, 자동화의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이러한 주제도 검토 필요
- 지역수준에서의 재해 이후 경제회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 이탈리아 : 젊은 여성의 고용 및 고용의 질 및 기회 등과 관련된 주제 필요
- 네덜란드 : 혁신적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인구전환관련 주제 필요
- 호주 : 시민간의 참여적 민주주의, 시민간의 상호 소통 주제 필요
- 리투아니아 :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수도권 외 인구희박 지역 등에 대한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시스템, 재원마련 등)이 필요할 것, 또한 지역과 수도권의 이동성(mobility)또한 주요 주제임
- 스페인: 공간적 불평등 해결 문제 등에 대해 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SDGs 달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접근, 도시-비도시의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기능지역 내 도시-시골의 연계방안 또한 중요함.
- 전통 산업의 침체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논의 필요.
- 가뭄, 화재 등 기후 및 자연 재해 이슈
- 비도시 지역 혁신, 지역 생산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낙후지역(lag behind)지역에 대한 정책
- 대한민국 :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 산업위기, 양극화, 생산하락 및 소득감소 등의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면 좋을 것 같음
- 칠레 : 사회적 분리(social segrigation), 주택(affordable housing) 문제, 시 간의 협력 부족, 다층적 거버넌스, 지역소득 불균형 등의 주요 이슈가 존재
- 핀란드 : 국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 지정과 지역 개발 모델 중요.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와 함께 감소하는 지역의 smart shrinkage 중요

- 독일 : 메가트렌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의 이슈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슈가 지역정책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임
- 스웨덴 : 지속가능성 문제, 지역간 격차 이슈 고려 필요. 도시-비도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생산 필요. 또한 특장점이 있는 비도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개발 전략 필요. 토착인구의 지역정책 및 개발 참여 필요

○ 사무국은 추가 정보를 수집 조사 수행

-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고 및 추가 조사를 시행 할 것이며, 12월 추가적인 의견 가운데 우선순위, 긴급성 등을 따라 선정 할 것. 웰빙이나 녹색성장, 포용성 등의 문제도 고려할 것. 새로운 데이터 등장의 이슈 및 거버넌스 등도 주요 이슈임.
- 2021~22에 대해 제안 된 PWB를 작성에 활용 후, 2020년 2 분기 승인위원회 제출 예정

[ITEM4] RDPC 강령(mandate, 2021~2025) 개정 (Renewal of the RDPC Mandate 2021-25)

1) 질의 및 논의 내용 요약

○ 대표단 발언

- 현재 RDPC 강령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
- 작업반에서는 이를 위한 자가평가 및 준비를 진행
- 따라서 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일정의 시간 계획을 제시
  · 2020년 1월 : 1차 초안 공람
  · 2020년 2월 : 2차(안) 공람
  · 2020년 3월 : 3차(안) 공람
  · 2020년 4월 : 위원회 승인 위한 최종안 준비
  · 2020년 5월-9월 : 이사회 승인 절차 진행

○ 강령관련 및 기타 주요 의견

- 프랑스 :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이슈와 관련한 정기적 논의를 가질 필요 있음
- 독일 :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위한 새로운 작업반은 창설은 쉬울 수 있으나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실질적 고려 및 고민 필요
- 일본 : 강령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나,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 영국 :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관련 역할의 주체, 일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및 정보가 필요할 것
- 미국 :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역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며, 새로운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가치, 역할, 목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 칠레 : 새로운 작업반에 대해 찬성하며
- 아이슬란드 : 강령에 대해 동의하며, 현재 분권화의 이슈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개념이므로 새로운 작업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불가리아 : 새로운 작업반에 대해서 찬성
- 에스토니아 :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찬성
- 이스라엘 : 다층적 거버넌스의 신설은 중요한 문제이나, 분절(fragmentation)에 대한 우려도 공존
- 스페인: 기존의 작업반이 존재하며 역할 중복 등의 우려가 되며,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되지 않음. 새로운 작업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짐.
- 호주, 핀란드 : 강령에 동의하나,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작업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무엇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할 것
- 그리스 : 강령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지함.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지역의 범위 및 인구 등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노르웨이 : 강령의 내용 구성에 대해 동의함. 다만, 다층적 거버넌스는 기존의 작업반과의 역할 및 내용에 차이점이 분명해야 할 필요
- 위원회 :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관련 반대나 찬성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고려하겠음. 특히 역할 및 주체 예산 등에 대해서 RDPC에서 논의하여 진행 할 것.

[ITEM5] OECD 지역 전망 2021
(OECD Regional Outlook 2021)

1) 지역전망 2021 주제 선정

○ 2021지역전망의 주요 주제 선정

○ 의장의 주요 주제(안) 제안

- 추후(2020년) 본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 예정

[ITEM6] 지역, 도시, 농촌 혁신
(Enhancing innovation in regions, cities and rural areas)

1) '산업변화에서의 지역(Regions in industrial transition):사람과 장소를 위한 정책'보고서 내용 공유

- 세계화, 기술진보, 탄소중립(climate-neutral), 순환경제는 OECD와 유럽지역의 주요 주제임
- 위기와 동시에 기회요인인 이러한 변화들, 즉, 자원고갈, 갑작스러운 기술변화, 세계의 경쟁 등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 자동화와 디지털화 등의 기술진보는 새로운 일자리와 이익의 증대, 더 나은 생활의 기준에 기여함
- 성공적인 산업전환관리란 제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산업전환의 혜택이 전방위로 퍼지는 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적이며, 따라서 특정 그룹이나 지역에 불균등하게 부과됨
- 오늘날의 산업 전환 요구를 해결하려면 모든 지역에서 관련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2) '비도시 지역 혁신(Rural Innovation)' 프로젝트 소개

- OECD 회원국의 비도시 지역들은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에 의존
- 세계화의 증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 거리의 감소 및 소통의 강화는 이러한 지역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비도시지역은 무역에 열려있고, 지역민들의 웰빙을 위해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임

- 세계화 및 무역패턴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의 비도시지역들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임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밀도 경제에 있어 어떻게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가와 이러한 혁신을 유발하는 요소 및 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증거를 강화하는 것
-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비도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
-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도시의 사례연구 진행)
- 기존의 전통적 지표를 넘어 혁신을 측정하는 방안, 혁신을 창출하는 동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타분야 작업반과의 협업 필요

3) 도시정부의 혁신역량강화(Enhancing Innovation Capacity in City Government) 보고서 내용 공유

- Champion Mayors Initiative는 지난 18 개월 동안 시장과 도시 직원과 함께 도시의 혁신 역량에 관한 대화에 참여함.

- 도시정부의 혁신역량강화 보고서(CItylab Washington D.C, 10월 28일)는 OECD의 90개 도시와 파트너 국가들에서 행해진 OECD-Bloomberg 조사에 대해 요약 함

- 그 내용은 지역 공공부문의 역량강화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가 어떠한 것, 이러한 역량이 도시로 하여금 어떠한 성과를 가지게 하는 지를 사전 문헌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음

- 어떻게 지역정부가 혁신하는지, 왜 그들은 혁신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혁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를 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도시의 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수있는 분석 프레임 워크를 제공함. 또한 5 가지 차원, 즉 혁신 전략 및 접근 방식, 혁신 작업의 인력 및 구조, 혁신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 된 데이터, 자금 지원, 목표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평가 한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함

- 다음 단계에서 OECD 타지역의 조사도 함께 진행될 필요

[ITEM7]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도시, 농촌 역량 강화
(Strengthening regions, cities and rural areas through digitalisation)

1) OECD Going Digital 프로젝트 진행사항 내용 공유 (job 등 사진)

○ horizontal activity, 인공 지능, 블록 체인 작업 등의 내용 공유

- 프로젝트의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또한 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 있음

2) 1차 OECD 스마트도시와 포용적 성장 결과 공유

○ 제1차 OECD 라운드 테이블 : 스마트도시와 포용적 성장의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한 공유

- CFE's의 스마트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1)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의 기여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재정의, 2) 스마트시티가 잘 작동하고 주민들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스마트시티의 성과 측정, 3) 도시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 및 이해 관계자 참여를 재구성하려는 지방 및 국가 정부의 시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임
- 서로 다른 도시, 주정보 및 민간, 국제기구 및 도시와 지역의 네트워크 학계 등의 사례 공유
- 라운드 테이블은 OECD의 초점인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계에 대한 강력한지지를 보여 주었음(한국)
- 또한, 도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개발
- 데이터 소유권, 시민 참여, 공공 조달, 대도시 거버넌스 및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스마트 시티의 거버넌스 재검토

3) 비도시(rural)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 비용 연구

○ 비도시(rural)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 비용 프로젝트 진행 소개

- 원거리 지역에 추가적 비용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음. 이것은 지역의 매력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됨
- 본 작업의 목표는 1) 지리적 level에 따른 서비스 공급 비용 추정, 2) 인구 연령구조 변화 및 주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서비스 비용 변화, 3) 통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공급 모델의 이점과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임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도시화 수준 및 지역 유형에 따른 정착 서비스 제공 비용 지표, 미래 서비스 제공에 기반한 인구 예측 및 도로 네트워크 계획의 비용 추정 등으로 구성 됨
- 서비스 전달 비용 추정하는 포르투갈 지역 사례연구 진행
- 공공서비스인 교육, 보건 등의 전달비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연락을 취하여 알려주기 바람
- 정책 분석은 농촌 지역에서 대체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현하는 증거기반의 정책시사점 제공에 초점을 둘 것임

[ITEM8]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적용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cities and regions)

1) SDGs 달성을 위한 국토전략(A Territorial Approach to SDGs) 초안보고서에 대한 소개

○ 17개 SDGs(2015-2030), 9개 도시 및 지역, 기타 사례 소개

- 본 보고서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pproach),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 세분화 및 책임의 공유의 접근방식을 통해,
- SDG의 정책 시사점, SDGs관련 평가(상호비교, 지역단위의 평가 기준) 및 지식공유 및 가이드를 목표로 함

2) 도시에 대한 OECD-EC 프로젝트 주요 결과 소개 및 의견 청취(사진)

○ 도시에 대한 정의, 도시화 정도, 기능적 도시지역에 대한 조사

- 동일한 기준을 산정하여 전세계에 적용하여 밀도 인구 등을 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비교 가능
- 주요 이슈 : 도시지역의 인구증가가 타지역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시설(수도관, 인터넷) 또한 도시가 타지역에 비해 높고,
- 건강수준도 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나라의 경제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큰 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큰 도시일수록 그 정도가 심화됨
- 즉, 수도와 도시가 성장의 수혜가 가장 크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고도화가 이를 대표함
- 도시의 밀도는 지역, 소득에 따라 다르며, 도시의 모양은 정책지역에 영향을 받음
- 이러한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및 OECD 내 역할과의 연계 방안 필요
-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은,
- 전세계 도시화에 대한 근거 마련,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성장과 성장동력 확인, 주거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 및 복지의 차이 확인, 도시형태의 진화와 SDGs 관계 확인 등이 될 수 있음
- 또한, 도시의 범위 및 인구 밀집도의 data를 활용하여, 도시형태(shape)의 진화, 진화와 관련된 SDGs 관계를 설명

○ 경제성장과 도시시스템의 형태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 발표

○ 주요의견

- 중간급 도시와 광역급 도시 사이의 거리 등 거리변수를 추가한다면 더욱 유용성과 시사점이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과 교외지역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
- 본보고서는 2020년 3월 발간 예정
- 아이슬란드 : 국가차원의 SDG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활용
- 영국 : SDGs의 정책적 적용방안이 중요할 것임
- 리투아니아 : SDGs는 현재 장기계획 수립 등의 정책 평가자료로 활용됨. 하지만 근거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 위성, 교통 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지표 등이 중요

- 독일 : 실제 시(municipalities)단위에서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뤄지는데, 기능지역은 더 크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의 이격이 발생

- 노르웨이 : 계획수립에 있어서 SDGs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유용함

○ 향후 추진 일정

- 독일 본에서 회의(Round table)이 진행될 예정(2019.12.9.)

- 승인 과정을 거치며, 2020년 2월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할 것

- 본 보고서의 결과는 10차 도시 포럼(아부다비, 2020년 2월)에서 공개 될 예정

[ITEM9] 원주민 커뮤니티와 지역개발의 연계

(Linking Indigenous communities with regional development)

1) 원주민 커뮤니티와 지역개발의 연계 연구 진행상황 공유

○ 2017년 OECD 원주민 커뮤니티와 지역개발 연계 프로젝트 수행

- 현재까지 스웨덴의 사미(Sami)원주민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

-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는 2019년 11월 19일에 진행된 WPRUR에서 논의됨

○ 이 프로젝트는 원주민 경제를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4가지 테마에 대해 평가하고 제안함

- 통계적 프레임워크와 원주민 데이터 거버넌스 향상, 재정 접근 이슈를 포함한 원주민 사업 정책, 토착지역 개발 도구, 원주민 강화를 위한 장소기반의 접근 적용

- 상기 주제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진행한 첫 사례이고, 이것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OECD 내 타 회원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임

2) 원주민 지도자(호주, 캐나다) 발표

○ 호주 및 캐나다 원주민 지도자 발표

- 경제 개발 정책 개선 기회, 과제 및 우선 순위 선정 필요

○ 연구의 시사점 공유

- RDPC에서 본 주제 관련한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예정

-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 및 원주민 경제 개발과 관련 주요 사례 공유

[ITEM10] 다층적 거버넌스(Advancing the global, regional and municipal dimensions of multi-level governance)

○ 9개 도시 및 지역, 기타 사례 소개

○ 주요의견

- 영국 : 국가별로 국토 공간구조가 달라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점 이 있을 것. 지역단위 내용도 포함 필요
- 포르투갈 : 국제 비교 및 지역계획 수립시 도움 될 것이며, 장소기반의 정책이 다른 부문에서도 중요하므로 협력적 접근이 중요
- 핀란드 : 건강 보건 부분 인구가 적어서 작은 지방은 세금 어려움이 있음
- 계획기반의 접근, 지역 세금 활용, 지역금융 활용 및 지역 투자 촉진, 지역 경쟁력 강화 필요.
- 프랑스 : 긴 시간동안 분권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적 지원(locally support)가 필요할 것. 또한 국가와 주차원에서 상호 협조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필요할 것임. 협력적 기관의 운영을 통해 지역 사업의 지원이 필요.
- 4월 20일 심포지엄 예정

[ITEM11] 지역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

○ 통합정책아래 EU기금의 거버넌스 강화: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로드맵

- "EU 펀드 관리자 행정역량강화(Building Administrative Capacity among Managing Authorities for EU Funds.)" 통합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공유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와 공공거버넌스 위원회가 함께 수행하였으며, 5개의 국가 및 지역수준의 기금관리조직이 참여하여 실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
- European Structural Investment Funds를 집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리자들이 행정과 투자 운영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 우선순위 결정, 프로젝트의 선정과 집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지식과 정보의 공유, 수혜자의 역량 강화 등의 문제를 다루며,
- 인재관리와 조직적 구조에 관한 공공거버넌스위원회 OECD의 다양한 정부 수준의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제언과,
- 상호접근방법과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 의해 수행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역투자에 관한 연구를 통합하여 실행
- 인력, 조직관리, 투자 실행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 역량 강화는 하향적 방식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상향적 방식 접근이 필요

- 기금의 수혜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을 수평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ITEM12] 접근성: 도시와 지역의 교통 수요 다시 생각하기

○ 도시와 지역 접근성의 경제개발과 보완적 정책, 거버넌스의 평가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통기반시설은 기회에의 접근의 분배와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 발간예정인 OECD 보고서「도시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기회 접근성의 보완」은 최근 교통투자의 트렌드와 교통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교통 접근성 개선을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를 평가
- 교통 투자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기회의 활용을 돕는 정책수단과 거버넌스 제안
- 교통에 대한 투자는 국가 및 지역정부의 예산에 있어 핵심적인 분야
- 2007-2008 금융위기 이후, 교통투자는 특히 예산규모가 큰 국가에서 감소하여 국가간의 투자갭은 줄어드는 추세
- 2009-2012 유럽연합지역에 대한 고속도로의 경제영향 평가 결과, 접근성의 향상은 총생산, 고용 및 지역인구 증가에 영향
- 교통접근성 향상의 수혜자 분석을 통해 접근성 향상 계획에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 통근권의 대중교통 개선, 고밀개발, 복합토지용도, 보다 포용적인 교통 정책 등 강조
- 지방 지역, 국가수준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 강조
- 영국은 도시재생을 위해 철도개발을 이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많은 지역에서 교통접근성 개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

○ 한국 발언
- 한국의 수도권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30분 생활권 단축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교통과 지역개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의 필요성 강조
- 특히, 접근성이 어려웠던 지역에 고속철도 연결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활기를 띠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 공간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을 강조

○ 의장발언: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접근성 정책이 현 프로젝트 진행에 영감을 주었음. 한국의 지속적인 관련 정책 수행 및 관심 표명에 감사함

[ITEM13]-마무리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Provided by TOPAS

현대아산주식회사

[redacted]

1524 / 05NOV19

승객성명	Passenger Name	KIM/DAVID MR KE11591843****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redacted]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신세계면세점 스마트선불 1만원 증정

증정장소 오프라인 각 점 고객센터

- $30이상 결제 시 사용가능, 회원가입필수
- 당일사용 한정, 일부 브랜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우측 QR및 매장 게시물 참조

여정 Itinerary

편명 Flight **KE0901** (예약번호: [redacted] Operated by **KE(KOREAN AIR)**

*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출발 Departure	**서울(ICN/Incheon intl)**	**18NOV19(월)**	**14:00**	**Local Time**	**Terminal No. : 2**
도착 Arrival	파리(CDG/Charles de gaulle)	18NOV19(월)	18:30	Local Time	Terminal No. : 2E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2H 3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예약등급	Class	M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8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MLX0ZRMK	좌석번호	Seat No.	33G
기종	Aircraft Type	AIRBUS INDUSTRIE A380-800			

편명 Flight **KE5902** (예약번호 [redacted] Operated by **AF(AIR FRANCE)**

* **AIR FRANCE** 항공기로 운항하는 공동운항편입니다.

AIR FRANCE 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Departure	**파리(CDG/Charles de gaulle)**	**23NOV19(토)**	**13:10**	**Local Time**	Terminal No. : 2E
도착 Arrival	서울(ICN/Incheon intl)	24NOV19(일)	08:10	Local Time	**Terminal No. : 2**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1H 0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예약등급	Class	Y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8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YNX0ZRMK	좌석번호	Seat No.	45E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 공동운항(CODE SHARE)편 이용 시 실제 운항 항공사에 따라서 마일적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항공기 기종은 사전고지 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Provided by TOPAS

현대아산주식회사

[redacted]

1524 / 05NOV19

승객성명	Passenger Name	JEONG/YOUN HEE MS KE11422770****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redacted]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신세계면세점 스마트선불 1만원 증정

증정장소 오프라인 각 점 고객센터

- 530이상 결제 시 사용가능, 회원가입필수
- 당일사용 한정, 일부 브랜드 제외
- 기타 유의사항 우측 QR및 매장 게시물 참조

여정 Itinerary

편명 Flight **KE0901** (예약번호 [redacted] Operated by **KE(KOREAN AIR)**

*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출발 Departure	**서울(ICN/Incheon intl)**	**18NOV19(월)**	**14:00**	**Local Time**	**Terminal No. : 2**
도착 Arrival	파리(CDG/Charles de gaulle)	18NOV19(월)	18:30	Local Time	Terminal No. : 2E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2H 3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예약등급	Class	M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8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MLX0ZRMK	좌석번호	Seat No.	38D
기종	Aircraft Type	AIRBUS INDUSTRIE A380-800			

편명 Flight **KE5902** (예약번호 [redacted] Operated by **AF(AIR FRANCE)**

* **AIR FRANCE** 항공기로 운항하는 공동운항편입니다.
AIR FRANCE 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Departure	**파리(CDG/Charles de gaulle)**	**23NOV19(토)**	**13:10**	**Local Time**	Terminal No. : 2E
도착 Arrival	서울(ICN/Incheon intl)	24NOV19(일)	08:10	Local Time	**Terminal No. : 2**

예상비행시간	Flight Time	11H 0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예약등급	Class	Y (일반석)	항공권 유효기간	Not Valid Before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좌석 타입	Seat Type	-		Not Valid After	18NOV20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수하물	Baggage	1PC
운임	Fare Basis	YNX0ZRMK	좌석번호	Seat No.	46H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 공동운항(CODE SHARE)편 이용 시 실제 운항 항공사에 따라서 마일적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항공기 기종은 사전고지 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